

고등학생의 SNS 이용 행태가 자아존중감과 공적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

홍지은** · 강민주***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SNS 이용 행태를 알아보고 SNS 이용 행태가 자아존중감과 공적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에 위치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총 442명(남학생 197명, 여학생 245명)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SNS 이용 행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주 이용하는 SNS종류, 이용 빈도, 이용 시간, SNS 친구 수, 이용 행동 등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이들 고등학생들은 자아존중감과 공적자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NS 이용 행태를 분석해 본 결과, 고등학생들은 인맥중심의 SNS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들의 SNS 이용 빈도, 이용 시간, 친구 수는 개인적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용행동의 생산적 활동과 소비적 활동은 중앙값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적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둘째, SNS 이용 행태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공적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SNS 이용 행태의 하위 요인 중 SNS 친구 수가 많을수록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NS 이용 행태의 하위 요인 중 SNS 이용 시간, 친구 수, 이용행동 중 생산적 활동과 소비적 활동이 높은 경우 고등학생의 공적 자의식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고등학생, SNS 이용 행태, SNS 친구 수, 자아존중감, 공적 자의식

* 본 논문은 2013년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의 데이터를 재분석한 것임.

** 연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제1저자

***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mj kang@yonsei.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의 발달 및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은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 환경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환경 변인을 ‘의미 있는 타인’을 중심으로 구분해 보면 부모와 관련된 환경, 친구 또는 또래와 관련된 환경, 교사와 관련된 환경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의 패러다임은 기존의 틀만으로 접근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11). 이제는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요소로서 온라인 및 사이버 환경이라는 구인이 가정, 학교, 사회 환경과 더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청소년들의 많은 활동은 온라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환경은 청소년들에게 유익하든지 해롭든지 간에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데, ‘2011년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여성가족부, 2012)’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59.7%(남 29.1%, 여 71.1%)은 SNS 계정을 소유하고 있으며,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 중 28.3%는 하루에 한 번 이상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2012)의 조사에서도 SNS를 가장 활발히 이용하는 연령층은 20대(89.7%)였으나, 6~19세의 SNS 이용률도 78.9%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최근 모바일을 통한 SNS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의 SNS 이용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SNS란 온라인상에서 사용자들 간의 관계형성을 지원하고, 이렇게 형성된 지인관계를 바탕으로 인맥관리와 정보 및 콘텐츠 공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칭한다(윤영선, 이국용, 2010). 현재 대표적인 SNS로는 페이스북(Facebook)과 트위터(Tweeter) 등이 있으며, 컴스코어 모비렌즈(comScore MobiLens, 2010)의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통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미국 10대들은 2009년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트위터는 전년 대비 347%가 증가했다. 여성가족부(2012)는 우리나라 만 12~19세의 스마트폰 사용률 역시 2010년 5.3%에서 2011년 40%로 급증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스마트 폰과 태블릿 PC 등의 보급 및 확산으로 인하여 현대 사회에서 SNS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SNS는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프로필을 게시하고 타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채널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Boyd & Ellison, 2007).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SNS 이용이 급증하고, SNS 이용자 중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SNS는 청소년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SNS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SNS의 영향력을 다룬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보화세대인 청소년들의 SNS 이용 행태를 다룬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기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이용 행태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며, SNS 이용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변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으로서 온라인 공간이 중요해졌으며, 인터넷 문화에 기초한 새로운 방식의 의사소통, 인간관계, 놀이문화는 타인 및 자신을 이해하는 청소년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준다(황상민, 2000).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이용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지만, 인터넷 및 온라인 활동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지난 십여 년간 많이 진행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Valkenberg, Peter & Schouten, 2006). Kraut et al.(1998)는 인터넷 사용은 사람들에게 오프라인 생활의 사회 활동 참여 저하를 일으키며, Mckenna와 Bargh(2002)은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은 그들을 낮은 수준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이끌고 이는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하지만 SNS는 사람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이 교류될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SNS 이용과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는 기존의 인터넷 이용과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과의 관계와는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살펴보는 것은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들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SNS의 사용과 관련 있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변인으로는 친구관계 및 심리적 안녕(Valkenburg & Peter, 2007; Valkenburg et al., 2006)이 있으며, 최근에는 SNS와 개인의 자아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SNS 이

용과 자아존중감을 살펴본 연구들은 SNS 이용 수준이 높은 경우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Mehdizadeh, 2010)와 SNS 이용 수준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Zywica & Danowski, 2008)가 공존한다. 또한 SNS 이용과 자아존중감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대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했기에 그 결과를 청소년 집단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살펴본 Valkenburg et al.(2006)은 단순히 청소년의 SNS 이용 빈도와 사회적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만을 다루었기에 청소년의 전반적인 SNS 이용 행태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이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관계에 대한 분석 자료는 부족하므로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SNS 이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Boyd와 Ellison(2007)은 SNS를 프로필 정보를 통하여 타인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웹기반 서비스라고 정의하였으며, SNS 프로필의 공개적인 특성을 강조하였다. 즉, SNS는 자신만의 정체성이나 자신의 특성을 나타내는 콘텐츠를 만들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이며 공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Erikson(1968)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SNS와 개인의 자아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은 개인의 공적 자의식 수준을 살펴본 바 있다. Lee, Moore, Park and Park(2012)는 SNS 친구 수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보는 경우, 개인의 공적 자의식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였으며, 대학생이 SNS상에서 친구를 만드는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공적 자의식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공적 자의식이 강한 개인은 타인에게 보이는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기를 중요시하기에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보이는 자신의 프로필에 크게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공적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며 사회적 인정이나 평판을 중요시하여 이를 자기표현에 반영하기도 한다(Hass, 1984). 이 논제를 뒷받침해 주는 또 다른 예로,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Shim, Lee & Park, 2008)에서 SNS에 게시물을 업데이트 하는 횟수가 공적 자의식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청소년기에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공적 자의식이 강해지는 시기이며(Rosenberg, 1979), 중기 청소년기에는 과장된 공적 자의식으로 인해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상상적 관중 행동(imaginative audience behavior; Elkind & Bowen, 1979)에 몰두하게 된다. 즉, 청소년들은 타인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범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타인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극도로 사로잡혀 있는 시기이다. SNS상에서는 게시물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적 피드백, 친구 수 등이 타인들에게 보이기에 청소년들의 SNS 이용 행태와 이들의 공적 자의식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점차 증가하는 청소년의 SNS 이용에 관심을 가지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SNS 이용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SNS의 특성상 SNS 이용과 청소년의 자아 관련 개념 사이에는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SNS 이용 행태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적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개념과 자아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춘 접근은 고등학생의 자기 관련 개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청소년들의 인터넷 및 SNS 이용과 관련하여 현재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이슈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이상의 연구목적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고등학생이 자주 이용하는 SNS 종류, 이용 시간, 친구 수, 이용 행동 등의 SNS 이용 행태는 어떠한가?
- 2) SNS 이용 행태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공적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고등학생의 SNS 이용

전국 초(4~6학년)·중·고등학교 재학생 6,5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2)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10년

5.8%에서 2011년 36.2%로 급증하였으며 그중에서도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소지율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청소년의 59.7%(남 29.1%, 여 71.1%)은 SNS 계정을 소유하고 있으며 SNS 계정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14%는 SNS상에서 현재 100명 이상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여성가족부, 2012)’에서 제시한 청소년의 SNS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 중 28.3%는 하루에 한번 이상 SNS를 통해 친구와 소식을 주고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SNS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을 살펴보면, 만 12세~49세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인터넷 이용자의 SNS 이용 실태 조사(방송통신위원회, 2010)’ 따르면 대학생의 SNS 이용률은 76.8%로 가장 높았으며, 초·중학생은 71.2%, 고등학생은 67.4%로 나타났다. 이후 ‘2011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에서도 역시 SNS를 가장 활발히 이용하는 연령층은 20대(89.7%)이었으나, 6~19세의 SNS 이용률도 78.9%로 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2년 청소년 통계(여성가족부, 2012)’에서는 고등학생들의 SNS 이용 여부가 초, 중, 대학생의 이용률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들의 94.3%가 최근 1년 이내에 블로그, 미니홈피와 같은 SNS를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한 SNS 활용이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고등학생들의 SNS 이용률이 점차 더 증가할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고등학생들의 SNS 이용 시간 역시 다른 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9세~39세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방송통신위원회, 2011)’에서 고등학생의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24분으로 하루 평균 20분을 이용하는 중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의 SNS 이용 동기는 ‘2009 인터넷 이용자의 SNS 이용 행태 조사(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에서 살펴볼 수 있다. 12세~19세의 청소년들이 SNS를 이용하는 동기는 ‘친교·교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91.3%)’,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해서(85.9%)’, ‘지식·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서(79.2%)’, ‘호기심 또는 새로운 재미나 즐거움을 위해서(79.9%)’, ‘다양한 분야의 정보 습득을 위해서(52.8%)’ 등으로 조사되었다.

2. SNS 이용 행태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온라인상의 활동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인터넷 사용이 개인의 심리사회적 안녕 및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gh & McKenna, 2004; McKenna & Bargh, 2000; Shaw & Gant, 2002).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있는 활동은 오프라인 상의 유대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주고 면대면 대화나 전화와 같은 의사소통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며(Wellman, Haase, Witte & Hampton, 2001), 인터넷을 통해 타인과 더 많은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Bargh & McKenna, 2004). 따라서 온라인을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발달시킬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자아존중감 및 심리사회적 변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Rohall, Cotten and Morgan(2002)은 인터넷 활동 중에서 정보 검색 활동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채팅 활동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 및 사회적 지지의 유무 여부에 따라 인터넷 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제시한다. 또한, Shaw와 Gant(2002)는 온라인상에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채팅에 참여 수준은 자신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Valkenburg et al.(2006)은 청소년이 SNS를 이용하는 빈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SNS 이용 빈도는 SNS 친구의 수를 통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Valkenburg와 Peter(2007)는 사회적으로 불안한 청소년들은 SNS에서 자신을 표현시키고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지각한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Mehdizadeh(2010)의 연구에서는 SNS 이용 빈도는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SNS 이용 시간 역시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이 어떤 집단이나 관계에서 느끼는 소속감에 영향을 받으며(Leary & Baumeister, 2000), Coopersmith(1967)와 Joseph(1994)는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중과 수용은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요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 형성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되며, 특히 또래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정기원, 2006). Leavy(1983)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의 활용가능성으로서 타인에게 제공받는 모든 지원을 포함 하고 있다. SNS는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를 제공하며 청소년들의 관계 형성 장소로서 SNS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SNS상의 타인과의 상호작용, 친구의 수, 그리고 피드백 등은 사회적 지지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SNS에서도 개인들은 오프라인에서와 같은 사회적 지지를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NS가 사회적 지지와 유대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에서 확인되고 있다(Baker & Moore, 2008; Ellison et al., 2007; Ko & Kuo, 2009). 박유진과 김재휘(2005)의 연구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교환되는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Zywicka와 Danowski(2008)의 연구에서도 SNS상의 친구 수는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3. SNS이용과 공적 자의식의 관계

자아존중감은 자기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는 반면, 자의식은 자기의 조절을 수반한다(Fenigstein et al., 1975). 따라서 자의식은 전략적인 자기표현 행동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Doherty & Schlenker, 1991), SNS 이용 맥락에서 자기표현 행동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변인은 공적 자의식이다(Shim et al., 2008).

공적 자의식과 SNS 이용의 관계를 본 경험적 연구는 거의 없다. 하지만 Doherty와 Schlenker(1991)는 공적 자의식과 사적 자의식은 전략적인 자기표현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인이라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공적 자의식과 SNS 이용과의 관계를 예측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공적 자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전략적인 자기표현에 몰입하는 반면 사적 자의식 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전략적인 자기표현을 적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Fenigstein(1979)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인상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공적 자의식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사교성이 높고(Tuner, Scheier, Caver & Ickes, 1978), 집단 중심의 성향이 강하며(조궁호, 명정환, 2001), 대인관계의 갈등해결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인다(김현진, 한종철, 2004). 이는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정보에 주의를 더 많이 기울이고 상대방의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향해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Fenigstein & Vanable, 1992). 따라서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다(Fenigstein, 1979). 또한 사회적 단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검색하는데 능숙하며 사회성과도 관련되고(Cheek & Buss, 1981),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인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보아 공적 자의식은 SNS를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정보의 검색과 타인의 게시물에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행동과 관련됨을 예상할 수 있다.

SNS가 일종의 자기표현이라는 점에서 살펴보면 SNS의 이용과 공적 자의식의 관계를 예측해볼 수 있다. 정승아와 오경자(2005)는 자기표현과 공적 자의식의 관계를 보고한 바 있는데, 자기제시 동기가 강한 사람들은 자신을 많이 표현하고자 하며 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더 집중하여 생각한다는 점에서 공적 자의식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김은혜(2009)의 연구에서도 공적 자의식은 자기를 제시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와 높은 수준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 즉 공적 자의식은 자기 제시 동기나 자기표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정승아, 오경자, 2005). 따라서 SNS 상에서 자기표현을 하는 행동은 청소년의 공적 자의식과 관계가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Shim et al.(2008)은 싸이월드 를 이용하는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적 자의식과 자기표현(self- presentation)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적 자의식은 SNS 업데이트 횟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바 있다. 또한, Lee et al.(2012)은 페이스북 이용 강도(Facebook intensity)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페이스북 의존성(Facebook dependency)과 공적 자의식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제시한 바 있다.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다. Scheier et al.(1978)에서 공적 자의식은 사교성과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으며, 김현진과 한종철(2004)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의식과 대인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공적

자의식은 다양한 대인관계의 하위영역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Lee et al.(2012)는 자아존중감과 SNS 친구 수의 부적상관은 높은 수준의 공적 자의식을 가진 개인에게 더 명확하게 나타난 반면 낮은 수준의 공적 자의식을 가진 개인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적 자의식과 SNS 친구 수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조사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중 설문에 허락한 2개교를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임의로 반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584명이었으나 누락항목으로 인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39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545명의 자료(남학생 257명, 여학생 289명)중에서 SNS를 이용하지 않는 103명(남학생 60명, 여학생 43명)의 자료를 제외하였다. 최종 연구 참여자는 SNS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2학년이며 총 442명(남학생 197명, 여학생 245명)이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2012년 청소년 통계(여성가족부, 2012)에서 고등학생들의 94.3%가 SNS를 이용해 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초·중학생의 이용률 보다 높게 나타난 수치이다. 또한 스마트폰을 통한 SNS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고등학생들의 SNS 이용률은 사실상 더 크다고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청소년 초기에는 자기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개념들은 매우 일시적이고 변화가 심하지만, 만17~18세를 기준으로 안정된 자기(self) 관련 개념들을 갖게 된다는 선행 연구들(한상철, 2004; 허혜경, 김혜수, 2010)에 기초한 것이다.

2. 연구 도구

1) SNS 이용 행태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가 제작한 질문지를 통해 알아보았으며, 질문지는 SNS 이용 유무, 자주 이용하는 SNS 종류, 주 당 이용 빈도, 1회 접속 시 이용 시간, 친구 수, 이용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SNS 이용 유무와 가장 자주 이용하는 SNS는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Matthew와 Soumitra(2010)의 SNS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자아중심형의 SNS로 분류된 페이스북, 싸이월드,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기타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고등학생들은 가장 자주 이용하는 SNS를 하나만 고르도록 요청받았다. 이용 빈도, 이용 시간, 업데이트 횟수는 주관식 문항으로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용 빈도는 평균 주당 이용 횟수를 측정하고 이용 시간은 1회 접속 시의 평균 이용 시간을 측정한다. 또한, SNS 친구 수는 고등학생들이 현재 SNS 상에서 맺고 있는 친구의 수를 알아보는 주관식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정확한 SNS 친구 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응답자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SNS 친구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SNS 이용 행동은 내가영(2012)의 연구에서 SNS 이용 행동에 관한 문항만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SNS 이용 행동은 5점 척도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번에서 7번 문항까지는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SNS를 사용하고 게시글의 업데이트 활동을 주로 하는 생산적 활동(예: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댓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에 관한 문항이며, 8번부터 14번 문항까지는 등록되어있는 게시글이나 자료를 눈으로 보기만 하는 소비적 활동(예: 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는 하지 않고 혼자 이용한다)에 관한 문항이다. 생산적 활동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7점에서 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SNS를 이용할 때 게시물을 자주 업데이트 하며 타인과의 교류 및 피드백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적 활동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7점에서 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SNS를 이용할 때 타인과의 교류 보다는 게시물을 열람하는 활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SNS 이용 행동의 두 하위영역들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는 생산적 활동은 .77, 소비적 활동은 .61로 나타났다.

2) 자아존중감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최정아(199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문항은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5개의 문항과 부정적으로 표현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청소년들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자아존중감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3, 5, 8, 9, 10번 문항은 역채점 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가능한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자료에서의 자아존중감의 문항 간 내적 합치도 지수인 Cronbach's α 는 .87로 나타났다.

3) 공적 자의식

고등학생의 공적 자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Fenigstein, Scheier and Buss(1975)가 개발한 자의식 척도(Self-Consciousness Scale)를 김은정과 오경자(199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문항은 평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적 자의식, 사적 자의식, 사회적 불안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질문지는 총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은 각 문항을 읽고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따라 공적 자의식을 측정하는 7개의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 자료에서의 공적 자의식의 문항 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 는 .73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2012년 9월에 실시되었으며, 경기도에 위치한 일반계 고등학교 2개교의 학생 5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에 앞서 연구의 목적과 소요시간 등을 학교

측에 알리고 담당교사의 허락 하에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응답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후에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성실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응답이 완료된 질문지는 작성이 끝난 직후에 연구자에 의해 수거되거나 담당 선생님의 의해 수거가 이루어졌다. 배부된 질문지는 584부였으며 전량 회수되었다. 584부 중 무응답 혹은 누락된 문항으로 인하여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39부를 제외하고 SNS를 이용하지 않는 103부도 제외하여 총 442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고등학생의 SNS 이용 행태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공적 자의식의 일반적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 평균, 표준편차 및 중앙값 등 기술통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회귀분석에 앞서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SNS 이용 행태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공적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고등학생들의 SNS 이용 행태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장 자주 이용하는 SNS 종류를 살펴본 결과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고등학생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SNS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스토리, 싸이월드, 트위터, 기타 순이었다. 고등학생들이 응답한 기타 답변으로는 미투데이, 네이버 블로그 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265명(60%)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SNS로 페이스북을 선택하였으며, 카카오톡 스토리는 126명(28.5%), 싸이월드는 23명(5.2%), 트위터는 15명(3.4%), 기타는 13명(2.9%)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고등학생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SNS 종류별 사례수

(N = 442)

분류	사례 수(%)
페이스북	265(60)
트위터	15(3.4)
싸이월드	23(5.2)
카카오 스토리	126(28.5)
기타	13(2.9)
계	442(100)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SNS 이용 빈도의 하위 요인별 평균, 표준편차 및 중앙값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고등학생의 SNS 이용 빈도는 평균 17.18번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등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SNS를 이용하는 횟수가 17~18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용 빈도의 범위가 0에서 154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가 24.28로 각 학생별로 SNS를 이용하는 빈도에는 개인적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 당 SNS 이용빈도의 중앙값은 7로, 이용 빈도의 범위(0~154)에서 가운데에 위치한 값은 7회임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SNS 이용 시간은 평균 13.45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고등학생들이 SNS를 1회 이용 시 평균적으로 13~14분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SNS 이용 시간의 점수 범위는 0에서 100분이며, 표준편차는 13.42로 나타났으며 중앙값은 10분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SNS 친구 수는 166.23로 나타났으며, 이는 1인당 현재 SNS상에서 맺고 있는 친구의 수가 약 166~167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점수범위가 1~588명이며, 표준편차가 101.57로 개인적 편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SNS 친구 수의 중앙값은 150명으로, 친구 수의 범위(1~588)에서 가운데에 위치한 값은 150명임을 알 수 있다.

SNS 이용 행동의 경우 생산적 활동과 소비적 활동의 점수 범위는 각각 7점에서 35점이었으며, 고등학생들의 생산적 활동은 19.56점, 소비적 활동은 19.62점으로, 두 가지 이용 행동 모두 중앙치인 21점보다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표 2
고등학생의 SNS 이용 행태의 하위 요인별 일반적 경향

(N = 442)

	범위 (최소값-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분할평균 (표준편차)
주 당 이용 빈도(회)	0~154	17.18(24.28)	7	-
1회 이용 시간(분)	0~100	13.45(13.42)	10	-
SNS 친구 수(명)	1~588	166.23(102.77)	150	-
이용 행동				
생산적 활동 (점)	7~35	19.56(5.32)	21	2.79(.76)
소비적 활동 (점)	7~35	19.62(4.25)	21	2.80(.61)

주. -는 분할평균을 산출할 수 없음을 나타냄.

2. SNS 이용 행태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적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에 앞서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적 자의식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점수 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며,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점수의 평균은 30.10점이었다. 이 점수를 분할평균으로 나타내면 3.01점으로, 중앙값인 2.5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자신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표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적 자의식의 점수 범위는 7점에서 35점이며, 고등학생의 공적 자의식의 평균점수는 26.63점이었다. 이 점수의 분할평균은 3.80점으로, 중앙값인 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공적 자의식은 보통 수준 보다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인들 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SNS 이용 빈도와 이용 시간은 곱하여 주 당 이용 시간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고

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SNS 이용 행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SNS 친구 수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SNS 친구 수의 상관관계수는 $r = .30$, $p < .01$ 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생의 공적 자의식과 SNS 이용 행태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공적 자의식과 SNS 이용 시간의 상관 계수는 $r = .13$, $p < .01$ 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자의식은 이용 시간뿐만 아니라 SNS 친구 수($r = .28$, $p < .01$), 생산적 활동($r = .25$, $p < .01$), 소비적 활동($r = .21$, $p < .01$)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3
측정 변인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

($N = 442$)

	1.	2.	3.	4.	5.
1. 주 당 이용시간	-				
2. SNS 친구 수	.04	-			
3. 생산적 활동	.19**	.34**	-		
4. 소비적 활동	-.04	-.14**	-.17**	-	
5. 자아존중감	.02	.30**	.03	-.03	-
6. 공적 자의식	.13**	.28**	.25**	.04	.21**

** $p < .01$.

SNS 이용 행태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SNS 이용 행태의 하위변인으로 주 당 이용시간, SNS 친구 수, 생산적 활동, 소비적 활동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NS 친구 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33$, $p < .001$), 이 회귀식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변량의 1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_{(4, 433)} = 11.01$, $p < .001$). 즉, SNS 이용 행태 변인들 중 SNS 친구 수 변인만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변량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SNS 이용 행태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검증을 위한 중다회귀분석

(N=442)

독립변인	β
주 당 이용 시간	-.03
SNS 친구 수	.33***
생산적 활동	-.08
소비적 활동	.01
R^2	.10
F	11.01***

** $p < .01$. *** $p < .001$.

SNS 이용 행태가 고등학생의 공적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SNS 이용 행태 중, 주 당 이용시간, SNS 친구 수, 생산적 활동, 소비적 활동을 예측변인으로 투입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회귀식은 유의하였다($F_{(4, 433)} = 15.30, p < .001$). SNS 이용 행태의 하위변인 들은 모두 고등학생의 공적 자의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친구 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beta = .23, p < .05$), 그 다음으로는 생산적 활동($\beta = .18, p < .001$), 소비적 활동($\beta = .11, p < .001$), 주 당 이용시간($\beta = .09, p < .05$) 순으로 공적 자의식을 설명하는 변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SNS 친구 수, 생산적 활동과 소비적 활동, SNS 이용 시간은 고 등학생의 공적 자의식 변량의 1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SNS 이용 행태가 고등학생의 공적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 검증을 위한 중다회귀분석

(N=442)

독립변인	β
주 당 이용시간	.09*
SNS 친구 수	.23***
생산적 활동	.18***
소비적 활동	.11*
R^2	.13
F	15.30***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SNS 이용 행태와 SNS 친구 수에 따른 자이존중감과 공적 자의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의 SNS 이용 행태

고등학생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SNS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싸이월드, 트위터, 기타(미투데이, 블로그 등)순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60%가 페이스북을 이용하며 28.5%가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 실태 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은 SNS 중에서 카카오톡과 페이스북을 가장 즐겨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트위터와 미투데이의 이용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정민(2011)은 SNS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특징을 제시하였는데, 페이스북과 싸이월드는 상호간의 친구 설정이 되어야 콘텐츠 공유가 가능하기에 오프라인에서 알고 있던 인맥 중심의 SNS를 통해 자신의 친구 및 지인들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며, 트위터나 미투데이는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혹은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 사용하며 블로그는 자신의 관심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역시 상호간의 친구 설정이 되어야 콘텐츠 공유가 가능하기에 인맥 중심의 SNS이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지인 및 친구를 관리하고 오프라인의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더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들은 SNS를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보다는 기존의 인맥을 강화하고 지인과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는 고등학생들이 SNS를 이용하는 이유가 지인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대

학생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거나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위한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한국청소년정책개발원, 2012)와 상통하는 결과이며, 나아가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SNS 이용 행태를 살펴보는 연구의 유의미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SNS에 17~18번 접속하고, 1회 접속 시 평균 13~14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등학생의 SNS 이용 행태의 하위 요인들의 표준편차는 평균보다 크게 나타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고등학생의 SNS 이용 행태에 있어서 개인적 편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등학생들이 SNS상에서 맺고 있는 친구는 평균 약 166~167명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개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청소년 매체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2)’에서는 청소년의 14%만이 트위터에서 100명 이상의 친구를 맺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최향단(2012)은 페이스북은 오프라인 인맥에 기초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거쳐야만 관계가 형성되는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이루고 있는 반면, 트위터는 새로운 인맥을 맺기 위해 사용하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기에 불평등한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고한 고등학생들의 SNS 친구 수와 여성가족부(2012)가 보고한 친구 수의 개념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SNS 유형 별로 친구 수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SNS 이용 행태에 따른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공적 자의식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인 SNS 이용 행태에 따른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공적 자의식 수준에 대한 분석에 앞서 우선, 본 연구에서 측정한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적자의식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았다. 자아존중감의 문항 평균은 3.01점으로 문항의 중앙값(2점)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다른 선행연구 결과(권순용, 2008; 정기원, 2006)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권순용(2008)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의 문항 평균을 2.77점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정기원(2006)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나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여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의 문항 평균을 3.12점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를 4점 척도로 변환하면 2.50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대상의 차이 때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권순용(2008)과 정기원(2006)은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 청소년 패널 데이터에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살펴본 홍세희, 박언하와 홍혜영(2006)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학년이 증가하면서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SNS를 사용하는 학생들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SNS 사용 중 친구 수라든지 사용 목적 등은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대상들의 자아존중감이 선행연구(권순용, 2008; 정기원, 2006)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들의 자료 수집 대상이었던 전체 학생들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SNS를 사용하고 있는 특정한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점에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

고등학생의 공적 자의식의 문항평균값은 3.80점으로 문항의 중앙값(3점)과 비교했을 때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보고된 공적 자의식 수준은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조한익과 손선경(2010)이 보고한 3.82점과 비슷한 수치이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Shim et al.(2008)가 보고한 3.70점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적 자의식은 청소년 중기에 높았다가 점차 하강하는 곡선을 보인다는 Randkin, Lane, Gibbons and Gerrard(2004)의 연구와 청소년시기동안의 공적 자의식의 곡선적인 증가와 감소를 확인한 선행연구(Elkind & Bowen, 1979)와도 제한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 주듯이 SNS 사용과 공적자의식이 정적 상관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SNS 이용자로 제한한 본 연구대상의 표본 특징과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

본 연구대상 고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공적자의식에 대한 일반적 경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SNS 이용 행태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 SNS 친구 수는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SNS 이용과 자아존중감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들(Valkenburg et al., 2006; Zywicki & Danowski, 2008)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Rohall, Cotten and Morgan(2002)은 인터넷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인터넷 사용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단순히 정보 검색을 위해 인터넷

을 사용하는 시간은 사회적 지지의 부재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사회적 지지가 교류될 수 있는 채팅 시간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Valkenburg et al. (2006)은 SNS를 이용하는 빈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경로에 있어서 SNS 친구 수와 긍정적인 피드백이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단순히 SNS를 빈번하게 접속하거나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오래 이용하는 주당 이용 시간이라는 변인보다 SNS 친구 수가 많음으로써 SNS 상에서 게시물을 업데이트 하거나 댓글을 다는 등 친구와 빈번한 상호작용을 하는 등의 네트워킹 정도가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SNS를 이용하는 빈도와 시간보다는 SNS 상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정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친구의 수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관련성이 있는 변인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SNS 이용 행태 수준이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고등학생들에게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SNS 사용이 자신에 대한 심리적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보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자를 독립변인, 후자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분석하였지만, 자료 수집의 시기상으로 같은 시기에 검증을 하였기에 실제적인 인과론적 해석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고등학생일수록 SNS에서 맺는 친구들의 수가 많았을 수도 있다.

Leavy(1983)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의 활용가능성과 그러한 관계로부터 받는 모든 지원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Swickert, Hittner, Harries and Herring(2002)은 온라인상에서도 각 개인들은 오프라인에서와 같은 사회적 지지를 교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여기서 사회적 지지는 가족, 친지, 학교 혹은 직장, 친구 등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받는 모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뜻한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특히 또래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정기원, 2006). 비록 SNS의 친구는 오프라인의 친구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SNS의 친구 역시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기에 서로에게 사회적 지지의 차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범위는 오프라인상의 사회적 네트워크의 범위를 반영하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하자면, 오프라인 상에서 친구가 많은 고등학생들은 SNS 상에서도 친구로 맺을 수 있는 인맥의 범위 또한 넓은 것을 의미하기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Tong, Heide, Langwell and Walther(2008)는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사회적 매력도는 일정한 친구 수 범위 내에서만 정적인 관계를 보이며 그 지점을 지나서는 부적인 관계를 보여 친구 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매력 및 수용도가 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SNS 이용 수준이 무조건 높거나 SNS 상의 친구가 무조건 많은 것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NS 이용 행태가 고등학생의 공적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SNS 이용 행태의 하위 변인인 주 당 이용시간, 친구 수, 생산적 활동, 소비적 활동 모두 공적 자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 자의식은 사회적 승인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자기표현과 관련된다는 Doherty와 Schlenker(199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이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들 중, SNS의 이용 강도와 공적 자의식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들(Lee et al., 2012)와 SNS 상의 게시물 업데이트 횟수와 공적 자의식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고한 선행연구(Shim et al., 2008)와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자기표현 동기와 공적 자의식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확인한 선행 연구들(김남재, 2005; 정승아, 오경자, 2005)의 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고등학생들에게 SNS는 자기표현의 수단이며 SNS상의 자기표현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인상을 중요시하는 공적 자의식이라는 개념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초기와 중기 청소년기에는 상상적 관중 행동(imaginative audience behavior; Elkind & Bowen, 1979)의 특징을 보이며 타인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범위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 SNS 이용에는 업데이트, 생산적 활동과 같은 자기 표현적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SNS 이용과 공적 자의식의 관계도 이와 같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고등학생들에게 이러한 관계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SNS 소비적 활동이 공적 자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는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에 민감하며 사회적 단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검색하며(Cheek & Buss, 1981),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실제 인상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는 연구결과(Tobey & Tunnel, 1981)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타인의 게시물을 살펴보는 등의 소비적 활동은 타인의 평가나 타인들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는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공적 자의식과 연관된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공적 자의식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한다는 연구결과(Cheek & Buss, 1981)를 고려한다면 소비적 활동이 단순히 게시물을 보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자신의 인상을 살펴보기 위한 활동이기에 공적 자의식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은주(2005)는 자의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 내면의 주관적 판단이나 성격적 특질이 아니라 사회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라고 하였다. 즉, 공적 자의식 역시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이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인간행동의 기초로서 역동적이고 분석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SNS 이용 행태 수준 및 SNS 친구 수와 공적 자의식과의 관계는 SNS의 공개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SNS상에서는 대화나 게시물 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도 공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NS 이용자의 온라인적 지위(online status; Zywicki & Danowski, 2008)를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SNS의 공개적인 측면은 개인의 공적 자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청소년 시기가 공적 자의식이 강해지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최근 청소년들이 친분은 없지만 서로의 SNS 친구 수를 늘려주기 위한 피상적인 관계를 뜻하는 ‘유령친구’를 맺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단서를 제공한다. 이를테면, 청소년들에게 SNS상에서 친구를 더 많이 맺도록 동기화 하는 요인에는 이러한 SNS 상에 친구의 수가 공개적으로 보이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2. 시사점 및 제한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기초하여 본 연구 결과가 가지는 시사점과 의의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SNS 이용의 각 하위 요인별로 고등학생의 SNS 이용 행태를 살펴보았다. 이제까지 국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의 이용 행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의 SNS 이용량이 증가하는 현시점에서 고등학생의 SNS 이용 행태를 자주 이용하는 SNS, 이용 빈도, 이용 시간, 이용 행동, 친구 수 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것은 청소년의 SNS 이용 행태를 세부항목별로 살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시도이며 이는 앞으로의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 및 SNS 이용과 관련된 연구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고등학생의 SNS 이용 행태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적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SNS 이용 행태의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 보지 않고 각 연구마다 이용 빈도 혹은 친구 수라는 변인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기에 SNS와 자기개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SNS 이용 빈도, 친구 수 뿐만 아니라 이용 행동까지 포함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SNS 이용 행태 중 친구 수 변인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NS 이용 행태의 하위변인 모두 고등학생의 공적 자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SNS 이용 및 인터넷 사용이 청소년의 자아 관련 개념에 있어 부정적일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SNS의 다양한 이용 행태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SNS를 이용하는 것이 생산적인 활동 등 특정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들의 자아 관련 개념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과 자기개념과 자아구조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면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SNS 이용 행태의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자주 이용하는 SNS의 종류를 살펴보기는 하였으나, SNS 이용 행태가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적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페이스북, 트위터, 싸이월드, 카카오 스토리 및 기타 SNS를 하나의 'SNS 이용'이라는 변인으로 묶어서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각기 다른 종류의 SNS별로 세분화하여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공적 자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SNS는 각 유형별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관계형성의 방법 등이 조금씩 다른 특징들이 존재한다.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SNS 종류별로 보다 자세하게 조사했다면 SNS 유형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각 SNS 유형별로 개인의 심리사회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면 보다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와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SNS 이용 행태의 다양한 활동을 살펴보기는 하였으나 SNS 이용 행태를 측정하는 도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용 빈도, 이용 시간을 측정하는데 있어 한 가지 문항으로 측정하거나 이용 행동의 경우 다른 연구자의 척도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청소년의 SNS 이용 행태는 관련된 변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친구를 맺는 활동에서도 이용자의 동기 혹은 기존의 오프라인의 친구인지 새롭게 맺은 친구인지에 따라 SNS와 자아존중감, 공격 자의식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사용동기 또는 친구의 특성 등 SNS 이용 행태의 다양한 활동들을 좀 더 세분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순용 (2008). 중·고교생이 지각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우울의 인과적 관계. **중등교육연구**, 56(2), 93-118.
- 김남재 (2005). 관찰자 관점과 자기제시 동기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발달학회지: 임상**, 24(2), 341-358.
- 김유진, 김재휘 (2005). 인터넷 커뮤니티의 사회적 지지가 커뮤니티 몰입과 동일시 및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3-25.
- 김은정, 오경자 (1994). 우울증상의 지속에 영향을 주는 인지 및 행동 요인들: 3개월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3(1), 1-19.
- 김은혜 (2009). **공적 자의식, 자기제시 동기에 따른 내현적 자기에와 완벽주의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현진, 한종철 (2004). 대학생의 우울 취약성과 자의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77-294.
- 내가영 (2012).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자의 능동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트위터와 미투데이 이용자의 생산적 활동을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73, 171-200.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11). 청소년 놀이공간으로서 사이버 세계에서의 자기개념: 초, 중, 고,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7(1), 81-113.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인터넷 이용자의 SNS 이용 실태조사** (통계; 2009-005). 서울: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2010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KISA-WP; 2010-0022). 서울: 한국인터넷 진흥원.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2011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서울: 한국인터넷 진흥원.
- 안정민 (2011). **SNS 사용자의 이용 행태와 성격이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여성가족부 (2012). **2011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은주 (2005). 성매매 청소년의 자의식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6(1), 195-224.
- 윤영선, 이국용 (2010). 모바일 SNS 이용만족과 습관이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5(4), 123-142.
- 정기원 (2006).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13(1), 165-190.
- 정승아, 오경자 (2005). 자기불일치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자의식의 매개효과와 자기제시 동기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4), 887-901.
- 조금호, 명정환 (2001). 문화성향과 자의식의 유형.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2), 111-139.
- 조한익, 손선경 (2010). 고등학생의 자의식, 불안과 방어기제간의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7(1), 19-42.
- 최정아 (1996). **자의식과 자존감이 상담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향단 (2012). **SNS 이용자의 미디어 인식과 성향이 온라인 관계형성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실태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상철 (2004). **청소년학: 청소년 이해와 지도**. 서울: 학지사.
- 허혜경, 김혜수 (2010). **청년발달**. 서울: 학지사.
- 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 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부모효과와 또래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17(2), 241-263.
- 황상민 (2000). 신세대의 자기 표현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호작용: 사고와 행동 양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9-19.
- Baker, J. R., & Moore, S. M. (2008). Distress, coping, and blogging: Comparing new MySpace users by their intention to blog. *Cyber Psychology, Behavior & Social Networking*, 11(1), 81-85.
- Bargh, J. A., & Mckenna, K. Y. (2004). The Internet and social 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 573-190.

- Boyd, D., & Ellison, N. B. (2007).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1), 210-230.
- Cheek, J. M., & Buss, A. H. (1981). Shyness and sociabi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330-339.
- Comscore Mobilens (2010). Facebook and Twitter access via mobile browser grows by triple-digis in the past year. Retrieved October 3, 2012, from http://www.comscore.com/Insights/press_Releases/2010/3/Facebook_and_Twitter_Access_via_Mobile_Browser_Grows_by_Triple-Digits.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Doherty, K., & Schlenker, B. R. (1991). Self-consciousness and strategic self pres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59(1), 1-8.
- Elkind, D., & Bowen, R. (1979). Imaginary audience behavior in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5, 38-44.
- Ellison, N., Steinfield, C., & Lampe, C. (2007).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s and social capital.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3), article 1. Retrieved August 20, 2013, from <http://jcmc.indiana.edu/vol12/issue4/ellison.html>.
- Erikson,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Fenigstein, A. (1979). Self-consciousness, self-attention, and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75-86.
- Fenigstein, A., & Venable, P. A. (1992). Paranoia and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129-138.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 Hass, R. G. (1984). Perspective taking and self-awareness: Drawing an E on you

- forehan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788-798.
- Joseph, J. M. (1994). *The resilient child preparing today's youth for tomorrow world*. New York: Plenum Press.
- Ko, H., & Kuo, F. (2009). Can blogging enhance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self-disclosure?. *Cyber Psychology & Behavior*, *12*(1), 75-79.
- Kraut, R., Patterson, M., Lundmark, V., Kiesler, S., Mukhopadhyay, T., & Scherlis, W. (1998). The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 1017-1132.
- Leary, M. R., & Baumeister, R. F. (2000). The nature and function of self-esteem: Sociometer theor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2*, 1-62.
- Leavy, R. L. (1983).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order: A review.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 103-123.
- Lee, R. J., Moore, D. C., Park, E. A., & Park, S. G. (2012). Who wants to be “friend-rich”? Social compensatory friending on Facebook and the moderating role of public self-consciousnes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 1036-1043.
- Matthew, F., & Soumitra, D. (2010). Throwing sheep in the boardroom: How online social networking will transform your life, work and world.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 Research*, *52*(3), 406-417.
- McKenna, K., & Bargh, J. (2000). Plan 9 from cyberspace: The implications of the Internet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4*, 57-75.
- McKenna, K., & Bargh, J. (2002). Consequences of the internet for self and society: Is social life being transformed?. *Journal of Social Issue*, *58*(1)
- Mehdizadeh, S. (2010). Self-presentation 2.0: Narcissism and self-esteem on Facebook. *Cyber 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3*, 357-364.
- Randkin, J. L., Lane, D. J., Gibbons, F. X., & Gerrard, M. (2004). Adolescent

- self-consciousness: Longitudinal age changes and gender differences in two cohor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4(1), 1-21.
- Rohall, D. E., Cotten, S. R., & Morgan, C. (2002). Internet use and the self concept: Linking specific uses to global self-esteem. *Current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8(1), 1-14.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 Scheir, M. F., Buss, A. H., & Buss, D. M. (1978). Self-consciousness, self-report of aggressiveness and aggress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2, 133-140.
- Shim, M., Lee, M. J., & Park, S. H. (2008). Photograph use on social network sites among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public and private self consciousness. *Cyber Psychology & Behavior*, 11(4), 489-493.
- Shaw, B., & Gant, L. (2002). In defense of the internet: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communication and depression, loneliness, self-esteem,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Cyber Psychology & Behavior*, 5(2), 157-171.
- Swickert, R. J., Hittner, J. B., Harris, J. L., & Herring, J. A. (2002). Relationships among internet use, personality, and social suppor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8, 437-451.
- Tobey, E., & Tunnel, G. (1981). Predicting our impressions on others: Effects of public self-consciousness and acting, a self-monitoring sub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7, 661-669.
- Tong, S. T., Heide, B. V. D., Langwell, L., & Walther, J. B. (2008). Too much of a good t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umber of friends and interpersonal impressions on Facebook.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 531-49.
- Turner, R. G., Scheier, M. F., Carver, C. S., & Ickes, W. (1978). Correlate of

-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 285-289.
- Valkenburg, P. M., & Peter, J. (2007). Online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well-being: Testing the stimulation versus the displacement hypothesi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4), article 2. Retrieved, October 3, 2012, from <http://jcmc.indiana.edu/vol12/issue4/valkenburg.htm>.
- Valkenburg, P. M., Peter, J., & Schouten, A. P. (2006). Friend networking sites and their relationship to adolescents' well-being and social self-esteem. *Cyber Psychology & Behavior*, 9(5), 584-590.
- Wellman, B., Hasse, A. Q., Witte, J., & Hampton, K. (2001). Does the internet increase, decrease, or supplement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participation and community commitm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5, 436-455.
- Zywica, J., & Danowski, J. (2008). The faces of Facebookers: Investigating social enhancement and social compensation hypotheses: Predicting Facebook™ and offline popularity from sociability and self-esteem, and mapping the meanings of popularity with semantic network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4(1), 1-34.

ABSTRACT

The effect of SNS use patterns on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Hong, Jieun* · Kang, Minj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SNS use patterns on high school students' self-esteem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were 442 (197 boys, 245 girls) high school students recruited from two high schools located in Gyung Gi province in Korea. The study participants responded to SNS use pattern questionnaires which consisted of questions reflecting the following; their utilization of SNS, the type of most frequently used SNS, SNS usage frequency, usage hours, the number of SNS friends, and their usage behavior patterns. The participants completed self-esteem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questionnaires as well. Data collected from the participants were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participants were shown to use SNS mostly for the purpose of social networking, however, their SNS usage frequency, usage hours per week, and number of SNS friends varied by a wide range among individuals. Moreover, the majority of the study participants were relatively less engaging in productive or consuming activities compared to the median itself. Second, the number of SNS friends were indicated as a variable which significantly predicts the high school students' high

*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self-esteem. On the other hand, SNS usage hours per week, the number of SNS friends, and SNS usage patterns such as engaging in productive activities and consuming activities were shown as significant predictors of a generally higher public self-consciousness amongst these high school students.

Key Words : high school students, SNS use patterns, the number of SNS friends, self-esteem, public self-consciousness

투고일 : 2013. 3. 11, 심사일 : 2013. 5. 20, 심사완료일 : 2013. 5. 30

